남평농협,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남평농협(농협장 김병원)은 제 11회 농업인의 날인 지난 11일 드들강 고수부지에서 최인기 국회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농업인 등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남평농협 브랜드인 '왕건이 탐낸 쌀'이 농림부·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06년 전국 우수브랜드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윷놀이·널뛰기·떡메치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줄다리기·줄넘기·대공굴리기, 화합의 한마당 코너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목포해경 민원행정 고객만족 전국 1위

목포해양경찰서가 하반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분야에서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 주관 하에 실시된 이번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 미래정책 연구원에 의뢰,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화면접 조사 방식(Tele-Survey)으로 실시됐다.

목포해양경찰은 통합민원실 확대 운영과 공무원이 민원인이 되어보는 '역지사지 운동', 정약용의 '목민심서 읽기 운동' 등 민원행정서비스 체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수달 서식지 레미콘 공장 안된다"

구례 섬진강변 건립 추진…환경단체·주민 반발

수달서식지이자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인근에 레미콘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D산업은 지난 3월 1만㎡ 부지에 레미콘 공장건립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서를 구례군에 제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5월16일 회사측 사정을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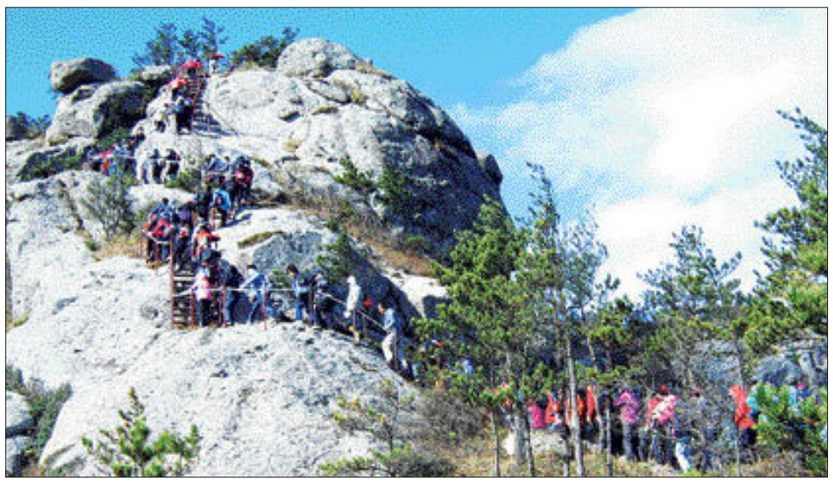
D산업측은 지난 6월에도 사업계획서 제출과 포기를 되풀이한 뒤 또 다시 지난달 23일 사업계획서를 구례군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구례군은 물론 광양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진입로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지난 5월 구례군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것도 이해가 안되며 D산업이 승인 요청과 포기서를 반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에 의문이 간다"며 "섬진강 지류인데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서식지로 널리 알려진 서시천과 인접한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 지역은 지리산 노고단과 화엄사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데다 하동군으로 이어지는 국도 19호선과 구례군 특산품 판매장이 인접해 있어 환경은 물론 미관상으로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례군은 '전북 임실군의 경우 지난해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자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타지역 사례를 수집하는 등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신안 비금도서 전국 등반대회

'제 2회 전국 도서 등반대회'가 지난 11일 신안군 비금면 선왕산(255m) 일대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선왕산 상암주차장을 출발, 죽치우실재~선왕산 정상~하누넘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5㎞구간에서 펼쳐졌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개관 3주년

지역민 문화공간 자리매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지난 10일 개관 3주년을 맞았다.

2003년 전국 제1호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도서관에는 그간 60여만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들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운영모델로 우뚝 서면서 지난 10월 말까지 전국 59개 기관·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갔고 매주 수요일 열리는 견학 프로그램만 149개 학교 및 관련 단체에서 방문했다.

도서관 문화에 새 바람을 일으킨 이 도서관은 도서관이 단지 시험공부나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를 위한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3년간의 운영사례를 담은 자료집 1천200부를 제작해 전국 580개 공공 도서관과 도서관 관계자, 학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기적의 도서관 2호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돌산 갓 사줍시다

조기 출하로 가격 폭락
지난해 4분의1수준 불과
여수시, 대책 마련 나서

여수 돌산 갓이 최근 가격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여수시가 돌산 갓 사주기 운동을 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산 갓 영농조합에 따르면 최근 돌산 갓(생갓) 한단(2㎏)의 도매 가격이 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천원선에 비해 4분의 1 가량으로 폭락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은 지난달 이상고온 탓으로 돌산 갓이 웃자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내내 계속된 따뜻한 날씨로 웃자란 돌산 갓이 예년보다 한달 가량 빠르게 대량으로 출하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농가에서 대량으로 갓을 심어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도 가격 폭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돌산 갓이 제값을 받지 못하자 여수시는 이달 초부터 돌산 갓 사주기 등 비상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순천과 광양, 구례 등 인근 시·군의 협조를 얻어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공단과 학교 급식 등 대량 소비처를 개발, 이달 말까지 돌산 갓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돌산 갓 사주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김장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 가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에서는 1천200여 농가가 600여ha에서 돌산 갓을 재배하고 있고 매일 42t가량을 서울 등 대도시로 출하하고 있다.

문의 061-726-0397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록 추진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 남해안 공룡화석지에 대한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남해안 공룡화석지는 지난 2002년 1월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됐으며 지난해부터 해남군을 비롯해 보성군과 여수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의 경우 2002년부터 남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460억원을 들여 보호시설과 학술조사, 공룡박물관, 기반시설 등을 갖췄고 보성군도 459억원을 들여 공룡공원과 공룡생태관,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다.

해남군은 특히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 공룡박물관 김승기 연구원은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것보다 전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룡 및 고생물 서식지 가운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에디오피아의 아와시 저지대와 오모 저지대, 남미 페루의 리오 아비세오 국립공원, 캐나다 알버타의 주립공룡공원 등이다.

한국의 공룡화석지는 세계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견된데다 공룡알과 다양한 공룡화석이 출토되고 있어 세계유산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